

서호인의 '소설처럼'



커피를 마시며 -박서련 장편소설 '카카듀'

흔히 우리더러 배달의 민족이니 한의 민족이니 흥의 민족이니 하지만 근래에는 그저 커피의 민족이라 불리야 맞지 않다.

했고 여러 치욕적인 경로를 거쳐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경성 거리에

'카카듀'는 조선인의 건물에 조선인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조선인의 카페였다. 카페의 공동 창업자는 영화감독 이경순과 그의 오촌 조카이자 하와이에서 태어나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신여성 현엘리스.

소설의 전반부는 깍다점보다는 영화 현상이 주된 배경이다. 보헤미안을 자처하는 이경순은 자주 실패하고, 그보다 자주 그만두며, 그것보다 자주 잊어버린다.

지금 이 시대의 카페는 100년 전만큼 절실한 공간은 아닐 것이다. 갑작스레 종로서에 끌려가 매를 맞거나 이곳에 머물 수 없어 만주로, 상해로 떠나야 하는 청년은 (거의) 없다.

의료칼럼

환절기 감기 주의보



박정열 상무365한방병원 원장

온만히 감기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인 인종이 다른 건강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인식한 학파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보약은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처방하는 약이 아니며 부족함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생겼을 경우 치료하기 위한 치료약이다.

인간의 건강은 자연을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천인합일(天人合一)이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드는 것이 만물의 이치인 것처럼 인간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다.

그러면 봄은 어떠한가? 겨울과 여름의 중간인 봄은 기온의 변화가 매우 크

다. 일교차라고 표현하는 기온의 차이는 인간의 몸을 약하게 만들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기로부터 쉽게 침범당하고 병들기 쉽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봄에는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의외로 건조해지기 때문에 따뜻한 음료를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방보험약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감기에도 효과가 좋은 편이다. 한의사가 문진과 맥진을 한 후 증상에 따라서 처방을 하며 아래와 같은 보험약들이 있다.

이중 구미강활탕은 초기 감기나 으슬으슬 춥고 미열이 있을 때, 몸이 무겁고 빠르한 느낌이 있을 때 복용하면 좋다. 소청룡탕은 맑은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의 초기 코감기에 효과가 있으며 삼소음은 가래를 포함한 기침 감기에 도움이 된다.

기고

호랑가시나무



이중식 소설가

었다. 원줄기가 두 가지로 뿔뿔이 나뉘어 서너 개의 잔가지로 뿔은 모습이었다.

언뜻 관상용 매화의 모습을 풍겼다. 맹감보다 조금 작고, 짙레꽃 열매만큼 한 뼘갈 열매도 진한 녹색 잎 사이에서 더 빛나 보였다.

"오만 원에 하나 주실 수 있어요?" 사내는 오십 살쯤 보였다. 아침부터 하나 팔았다는 표정이 희히 보였다.

"아따, 아침부터 만 원이나 깎아버리네." 조금 무거웠다. 가게 문 옆에 놓았다. 고대하러 나온 아내가 화분의 나무를 유심히 보더니 환하게 웃었다.

"엄정, 좋아 보이네! 얼마 했어요?" 나는 얼른 화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 놓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불수록 마음에 들었다.

물을 흠뻑 주었다. 식물 영양제를 사와 호랑가시나무 화분에 쏟았다. 옆에 있는 다육식물과 꽃 그리고 선인장이 나를 찌러보는 것 같았다.

기분이 좋았다. 손을 깨끗이 씻고 이른 점심을 먹고 다시 가게에 나왔다. 아내가 휴식을 취할 시간이었다.

한숨 쉴까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누구 맘대로 선인장을 잘랐어? 왜 잘랐어? 왜 왜 왜!"

머칠이 지났다. 어느 때처럼 식사하러 집에 들어왔다. 베란다에 흠어져있던 화분들이 정리되어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호랑이와 맞닥뜨린 꿈을 꾸고 며칠이었다.

社說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기업유치 마중물되길

전남도가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기업과 자본을 전남에 유치하기 위한 세일즈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충남 천안시청에서 열린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1조4000억원 규모의 '여수 묘도 LNG터미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민간 자본 투자를 촉구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프로젝트다. 정부는 이를 위해 3000억원의 '모펀드'를 조성했는데 자치단체들이 지역별전을 견인할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자펀드' 조성이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남도는 여수 묘도 LNG터미널 사업을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날 출범식에서 모범 사례로 뽑혔다. 이 사업은 여수시 묘도동 일원 8만3000평 부지에 LNG 저장탱크와 전용

항만,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1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조8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2020년 순수 민간투자자로 시작됐지만 고금리로 민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지연됐다

전남도는 이밖에 고흥 우주발사체산업 클러스터와 카카오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등에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잘 활용하면 기업유치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 펀드를 활용해 지역별전을 견인할 사업을 추진한다면 지방 소멸을 늦추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 극단 선택 예방 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에서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10대 이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야간·공휴일 응급 상황에서만 이뤄지는 '청소년 정신응급상황' 출동 건수는 지난 2019년 47건에서 2023년 120건으로 2.5배 넘게 증가했다. 또 극단적 선택 시도 등으로 강제 입원이 된 사례도 2019년 13건에서 2023년 62건으로 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입원으로 처리되는 청소년 정신응급상황 외에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 실제로 광주에서 최근 5년간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19세 이하) 사망자 수는 2019년 7명, 2020년 11명, 2021년 9명, 2022년 14명으로 증가했다.

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500여명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10대 이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물론 가정과 학교의 대책은 미진하다. 청소년이 스스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도 부모의 반대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고 한다. 대다수 학부모가 학교 출석 일수를 채워야 한다는 이유로 원원 치료를 꺼리기 때문이다.

청소년은 나라의 미래인 만큼 마음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보호하고 혹시 모를 극단 선택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無等鼓

이건 미친 소리일 수도 있다. "주먹은 상품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소셜(Social) 또는 퍼블릭(Public) 하우징을 연구하고 있는 이병훈 건축사가 최근 광주에서 강연을 했다.

소셜 또는 퍼블릭 하우징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 또는 공공주택이다.

소셜 또는 퍼블릭 하우징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회 또는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우리말이 그 함축된 의미와 유럽 사회가 노력해온 역사를 담지 못하고, 일부의 반자본주의적인 주장인 것처럼 해석되기에 원래 표현을 그대로 쓴다.

햇볕·공기·빛을 중시해 시민 건강을 우선

하고, 디자인 요소도 강조해 6~7층 높이의 아름답지만 완전히 다른 공공주택들이 도시 곳곳에 들어서 있다.

그들의 정책이 무조건 좋을 수 없으며 여건도 다르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입지와 투기꾼을 위한 주택정책이 몰가 상승, 결혼 포기, 수도권 쏠림 등 민생고의 시작이라는 점을 분명하다.

서울 강남 아파트 3가구 무순위 청약에 2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101만명이 전국에서 달려들고,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20% 이상씩 폭등하는데도 정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정상적인가. 여야와 보수·진보 가릴 것 없이 부동산 시장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유현석 정치부 부국장 chadol@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편집부, 정치부, 경제부, 사회부, 전담부, 문화부, 예향부, 사진부, 체육부, 경영지원국, 기획관리국, 다자인실,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